

“광주·전남 방사성 물질 日 규슈 수준”

日 기상청 공식 확인... 한반도 전역 노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비록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특히 지난 4일부터 광주와 전남·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에 누적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일본 본토인 규슈(九州) 지방과 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사흘 뒤인 7일에는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예측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

으로 작성됐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측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 1베크렐(Bq)이 방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5일~6일에는 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7일에는 호남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 1m당 1000조(兆)분의 1Bq 상당의 방사성 물질이 지상에 떠다닐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같은 날 서울과 강원도 등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은 이보다 100배 적은 1m당 10경(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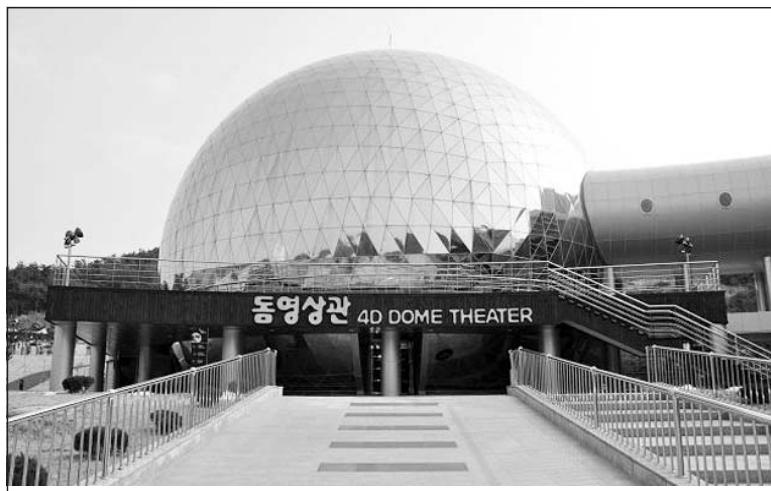
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이 일본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7일 홈페이지에 올린 ‘6~9일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도’에서 일본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사흘 뒤인 9일에는 한반도 쪽이 아닌 일본 동북쪽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일본의 방사성 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크게 바뀐 것은 예측 모델에 입력한 데이터와 예측 기간 등이 변하면서 결과가 새로 도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가장 근거한 것 이어서 실제 관측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수현기자 yang@.연합뉴스



“우주가 몸으로 느껴져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4D 둘영상관’ 개관

‘우주가 몸으로 느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3주년을 맞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4D 둘영상관(사진)’을 8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우주영상 전문 상영관인 이 둘영상관은 17.8m 크기의 둔스크린과 150석 규모의 4족 진동좌석

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4차원 디지털 둘 영상관이다.

특히 총 7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한 고화질 영상과 7.1채널의 생생한 음향 시설은 진동, 바람, 불, 번개 등 체험효과까지 제공한다.

영상관은 다양한 우주영상 콘텐츠와 체험효과로 꿈나무들이 미래 과학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우주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놀이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올상반기에는 ‘ASTRONAUT’ ‘SpacePark 360’ 등이 상영된다.

또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내에서 ‘한국우주인배출 3주년 기념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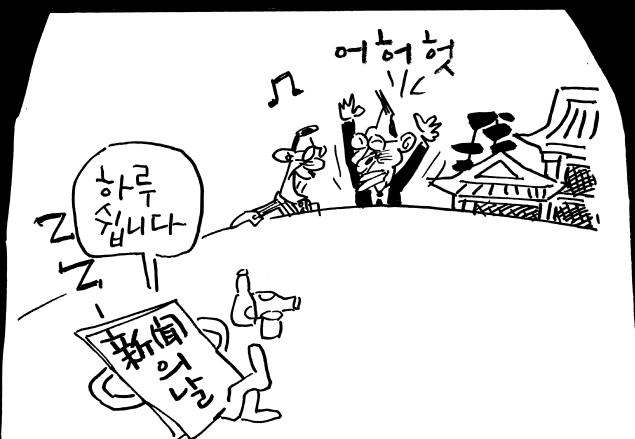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0일 동안 수행한 우주과학실험 영상을 비롯해 실험장비 및 활동사진 등으로 꾸며지고, 13일에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내에서 이소연 박사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이고! 시원하다

日 만령

- 김종우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아버님(故 이강재) 상중에
크신 애정과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1년 4월 8일

미망인 정옥진
아들 이종위 자부 탁혜성
딸 이종미 사위 김영권
이종은 김영일
이종석
이종필 배상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 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준제)

문 의 02)6908-7021, 7024(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²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회생장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굴삭기·지게차·판매·임대·A/S·중고매매·캐피탈

덕승건기(주) · 덕승롤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축기대출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d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세계 1위 풍력기업 전남에 투자

박준영지사 투자 유치단

덴마크社와 MOU 체결

MOU SIGNING CEREMONY

Betw Jeollanam-do and Vestas

투자 협약 체결

6 April 2011. Aarhus in Denmark

Vestas

전라남도

Vestas

박준영 전남지사(왼쪽 두번째)와 앤더스 서-안센 베스타스 사장(세번째)

이 6일 덴마크 베스타스사에서 풍력발전기 설비공장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밝혔다.

박 지사는 “세계 1위 풍력기업과의 투자협약은 전남의 5GW 풍력프로젝트가 단계별로 풍력발전 전기 제조업체로부터 설비 투자 협약을 이끌어 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덴마크 베

스타스(Vestas)사 연구개발센터에서 앤더스 서-안센 베스타스 사장과 풍력발전기 설비공장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

다.

베스타스사는 1945년 설립돼 연

매출 60억유로, 고용인원 2만3000

명에 풍력발전 관련 제조회사 등

총 1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풍력기업으로 세계 풍력시장에 약 20%를 점유하고 있

다.

서-안센 베스타스 사장은 “잠재

력이 큰 전남 5GW 풍력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풍력발전기 조립생산 뿐만 아니라 타워, 블레이드 등 부품 생산 구성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 결을마 단계에 있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는 국내 풍력산업 육성기반 조성

과 국내 풍력 관련 부품기업들의

기술력 축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이에 앞

서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5MW급

해상 풍력발전기를 상용화한 독

일 리파워(REpower)사, 풍력발

전 프로젝트 개발에서 설비생산

까지 일관체계를 갖춘 바드

(BARD)사와도 투자상담을 벌여

이들 기업의 전남 지역 투자여부

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필수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통신업체 광주에 200억 투자

코스닥 상장사 코아크로스

광통신업체로서 코스탁 상장사인

㈜코아크로스가 광주시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

에서 서울소재 중견기업으로서 코스

탁 상장사인 코아크로스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산업

분야에서 코스다 상장기업이 광주에 진출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아크로스는 지난 1997년 서두인

침(주)으로 설립된 뒤 2006년 11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연구중심기업

으로, 주문형 반도체(ASIC)와 케이

블카드(Cablecard) 분야에서 독보적

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코아크로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0

농식품부는 “가축시장 개장 이후에도 가축시장을 통한 질병 전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시장별로 개장지·지역축협으로 하여금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조치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가축시장의 청소·소독 등 방역실태 이